

魏晉南北朝 小説 語氣詞 考察

李禾範*

◁ 목 차 ▷

- I. 緒言
 - II. 선진양한시기 어기사의 종류와 어법기능
 - III. 문형별 어기사 유형분석
 - 1. 陳述文에 쓰이는 어기사
 - 2. 疑問文에 쓰이는 어기사
 - 3. 命令文에 쓰이는 어기사
 - 4. 感歎文에 쓰이는 어기사
 - IV. 結言
-

I. 緒言

語氣詞(modal particles)는 학자에 따라 달리 語氣助詞라 불리며, 일반적으로 문장의 끝에 놓여 某種의 어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漢語에 있어서 한 문장의 어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명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방법은 語調와 어기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古代漢語를 연구할 때 현재로서는 古人이 사용한 어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문에 어기사는 고대한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古文獻에 나타난 문장의 어기를 파악하는 주요한 標識로 여기고 있다. 비록 시기별 한어의 어기 표현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古수를 막론하고 한어에 있어서 표현하려는 어기는 일치한다고 본다. 인류가 표현하는 어기와 표현의 목적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張靜(1987)은 표현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네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¹⁾

- 일.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 이. 다른 사람에게 일종의 요구나 희망을 제기하는 것
- 삼. 자신의 어떤 강렬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
- 사.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알려주는 것

상술한 표현목적에 근거하여 문장을 분류하면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진술문의 네 종류로 나누어진다.

본문에서는 상술한 어기에 따라 분류된 네 문형을 위주로 先秦·兩漢 시기의 어기사 용법을 참고로²⁾ 하여 비교적 구어체 혹은 대화체에 근접한 위진남북조 시기의 네 소설³⁾ 《世說新語》·《搜神記》·《西經雜記》·《博物志》의 직접인용문에⁴⁾ 나타난 어기사의 형태와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기사에 대한 선진시기와 魏晉南北朝 시기의 역사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여긴다.

II. 선진양한시기 어기사의 종류와 어법기능

언어란 것은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 요인에 의하여 끊임없이 생성, 소멸, 변화, 발전 등의 과정을 거치는 유동적 존재이다. 한어의 형성과정도 이러한 언어의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어기사의 종류와 어법기능도 예외가 아니어서 각 시기별로 특색을 나타내

* 경성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 1) 張靜, 《漢語語法問題》: 「其一, 向別人提出一個問題; 其二, 向別人提出一種要求或希望; 其三, 表示自己的某種強烈感情; 其四, 告訴別人一件事。」(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664쪽
- 2) 참고: 孫錫信, 《近代漢語語氣詞》, 北京, 語文出版社, 1999년./楊伯峻, 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 北京, 語文出版社, 1992년 등.
- 3) 주 분석자료: 範寧《博物志校證》本, 中華書局, 1980年./汪紹楹, 《搜神記》校註本, 中華書局, 1979年./程毅中, 《西經雜記》點校本, 中華書局, 1985年./俞嘉錫, 《世說新語箋疏》本, 上海古籍出版社, 1996年.
- 4) 네 소설이 가진 대화체의 특성을 살려 위진남북조시기의 구어적 실제언어에 접근하기 위해 직접인용문의 대화체 문장을 대상으로 삼았다.

고 있다.

여기사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끝에 쓰여 진술어기, 의문어기, 명령어기, 감탄어기 등의 일정한 어기를 표현하며 언어환경에 따라 다양한 어법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漢語史의 변천과정에서 上古時期에 속하는 先秦兩漢시기에 많이 쓰이는 여기서로는 “也·矣·耳(爾)·乎·邪(耶)·哉·而已”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여기서는 언어환경에 근거하여 하나의 여기서가 서로 다른 어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다양한 어법기능을 표현하기도 한다.

선진양한시기의 문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여기서 “也”로서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진술문<판단>] 陳涉者，陽城人也。《史記·陳涉世家》

(진섭은 양성사람이다.)

[진술문<어기강화>] 憂，難圖也。《左傳·隱公元年》

(세력이 뺏어나가면 도모하기 어렵다)

[진술문<휴지 혹은 열거>] 回也，聞一知十；賜也，聞一知二。《論語·公冶長》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지만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 만을 압니다.)

[명령문] 毋從俱死也。《史記·項羽本紀》

(그를 따라 함께 죽지 마라.)

[의문문 중의 판단 혹은 부드러운 표현] 追我者誰也？《孟子·離婁下》⁵⁾

(나를 쫓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감탄문] 惡！是何言也！《孟子·公孫丑上》

(허! 이진 무슨 말인가!)

상술한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也”는 서로 다른 어기를 나타내는 문형에서 다양한 어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상술한 용법이 모두 “也”의 주

5) 여기서 “也”는 「子張問：‘十世可知也?’」《論語·爲政》 혹은 「又曰：‘君疑我也?’」《搜·戴文謨》처럼 선진양한시기나 본문의 분석자료에서도 의문어기를 나타내는 문장에 쓰이고는 있지만, 독자적으로 의문어기를 표현하는 문장은 수량이 극히 적고 대부분 앞뒤의 문맥이나 의문어기를 표시하는 의문대사 혹은 부사와 함께 쓰여 독자적으로 의문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본문에서는 여기서 “也”를 의문어기사로 보지 않고, 단지 의문문에서 판단의미나 부드러운 표현 혹은 겸허한 표현의미를 나타내는데 쓰인다고 여긴다.

기능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문장 속에서 언어환경에 근거하여 보조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先秦兩漢시기에 많이 사용된 어기사의 기본적인 어법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也: 주로 진술어기를 표현하며 문장에서 靜態的 의미로 판단 어기강화 휴지 혹은 열거 등의 어법기능을 나타낸다.
- 矣: 주로 진술어기를 표현하며 문장에서 動態的 의미로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미 발생한 적이 있는 상황”의 어법기능을 나타낸다.
- 耳(爾)·而已: 주로 진술어기를 표현하며 문장에서는 “단지 ~할 뿐이다”의 의미로 의미상의 제약 혹은 한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 乎·邪(耶): 주로 의문어기를 표현하는데 쓰인다.
- 哉: 주로 감탄어기를 표현하는데 쓰인다.

Ⅲ. 문형별 어기사 유형 분석

위진남북조 시기 네 소설의 직접인용문에 나타난 어기사를 “진술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등의 문형에 따라 그 출현유형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陳述文에 쓰이는 어기사

선진양한 시기 문헌에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진술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사로 “也·矣·耳(爾)·焉” 등이 있다. 이 중 “也”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고 “矣”가 그 뒤를 이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⁶⁾ 위진남북조 시기의 네 소설에 나타난 진술어기의 어기사를 살펴보면 선진양한 시기의 진술어기사가 대부분 계승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운용에 있어서는 아래 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소 변화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6)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北京, 語文出版社, 1992년), 902쪽 참조.

표1	세설신어	수신기	서경잡기	박물지	소계
也	57	158	40	8	263
矣	17	19	8	3	47
耳	76	38	2	1	117
爾	11	2			13
而已	2		1		3
焉	2	3	2		7
복합	1(矣耳)	1(耳也)	3(也耳) 1(也焉)		6
합계	166	221	57	12	456

표1을 근거해 살펴보면 진술어기사 중 “也”의 출현빈도는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耳”은 그 다음으로 25.7%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矣”는 10.3%, “爾”은 2.9%, 그 외 다른 어기사는 3.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선진 양한 시기와 비교할 때 어기사 “矣”의 운용은 축소되었고, “耳”의 운용은 확대되어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빈도가 높은 어기사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也”를 수반한 진술문

선진 양한 시기 문헌에서 “也”는 가장 많이 사용되던 진술어기사 중 하나이다. 주 기능은 문장의 언어상황에 근거하여 판단, 원인과 결과설명, 어기강화, 문장 간의 휴지 혹은 열거 등을 나타낸다. 위진남북조 시기의 네 소설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선진 양한 시기의 이러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1.1 판단

(1)世之所說：“……敗者，疲弊之象也。……”《搜·敗屨聚道》
 세상사람들은 말한다：“……넉음이란 것은 피로와 궁핍의 상징이다.……”

(2)羊祜曰：“亂天下者，必此子也!”《世·識鑒》

羊祜가 말하였다:“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는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

(3)感翻夢云：“我伯夷之弟，孤竹君之子也。……”《博·259》

黃翻의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나는 伯夷의 동생이며 孤竹君의 아들입니다.”

(4)仲舒曰：“……此皆陰陽相蕩，而爲稷珍之妖也。”《西·118》

董仲舒가 말하였다:“……이것은 모두 음양이 어그러져 稷珍의 요괴가 되기 때문입니다.”

1.1.2 어기강화

(1)謂淮曰：“喬當及卿，髦小滅也。”《世·品藻》

楊淮에게 말하였다:“喬는 당연히 그대에게 미칠 수 있지만, 髦는 조금 손색이 있다.”

(2)仲舒曰：“……故知陰不得無陽，陽不容都無陰也。”《西·118》

동중서가 말하였다:“때문에 음기 속에 양기가 없을 수 없으며 양기 속에 음기가 없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一小兒曰：“我以日始出時，去人近，而日中時遠也。”《博·275》

한 아이가 말했다:“나는 해가 떠오를 때 사람과의 거리가 가깝고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멀다고 여깁니다.”

(4)陔曰：“通雅博暢，能以天下聲教爲己任者，不如也。……”《世·品藻》

武陔가 말하였다:“고아한 인품과 박식한 학문으로 세상의 교화를 자신의 임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부친만)못하다……”

(5)后問女，言：“但見好屋，吏卒，不覺在水中也。”《搜·張璞》

나중에 딸에게 물으니, 말하였다:“단지 좋은 집과 관리와 병사들만 보았지 물 속에 있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다.”

(6)其人曰：“不知也。”《博·282》

그 사람이 말하였다:“모르겠습니다.”

예(1)-(3)은 긍정적인 어기를, (4)-(6)은 부정적 어기를 강화하고 있는 예문이다.

1.1.3 원인 혹은 결과 설명

(1)仲舒曰：“……齊麥始生，由陽升也。……”《西·118》

동중서가 말하였다:“냉이나 菜藻가 되살아나는데, 이것은 양기가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2) 秦青願謂其友曰：“…故雍門人至今善歌哭，效娥之遺聲也。”《博·281》
진청은 고개를 돌려 그 친구에게 말하였다：“…… 옹문 일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까지도 노래와 울기를 잘하는 것은 한아가 남긴 소리를 본받았기 때문이다.”

(3) 余應之曰：“…見張丞相墓前石馬，謂爲鹿也，卽以斧過之，斧缺柯折，石馬不傷。…”《西·122》

나는 그의 물음에 응하며 말하였다：“張 丞相의 무덤앞에 세워져 있는 석마를
보고 사슴으로 여겼기 때문에, 곧 도끼로 그것을 찍었는데 도끼날은 빠지고 자
루는 부러졌지만 석마는 손상을 입지 않았다.”

(4) 答曰：“……夫酒忘憂，故能消之也。”《搜·酒消患》

(동방삭이) 답하여 말하였다：“무릇 술이란 것은 근심을 잊게 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었다.”

예(1)(2)는 원인, 예(3)(4)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상술한 예문의 원인
혹은 결과를 나타내는 기능은 “由, 故”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예(3)에서 처럼
“由, 故”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원인을 설명하는 예문으로 보아 여기서 “也”
가 문장에서 원인이나 결과를 설명하는데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1.4 어음상의 休止 혹은 提示

(1) 或告之曰：“天命也，不可力求。”《搜·張氏鈎》

어떤 사람이 그에게 알려주며 말하였다：“천명이라는 것은 힘써 구할 수 없다.”

(2) 山公曰：“嵇叔夜之爲人也，岩岩若孤松之獨立。……”《世·容止》

山公이 말하였다：“嵇叔夜의 사람됨은, 孤松이 홀로 선 것처럼 우뚝하다……”

(3) 孔子曰：“此物也，何爲來哉？……”《搜·五酉》

공자가 말하였다：“이 물건이 어찌 왔는가?……”

(4) 曰：“公教人啖一口也，復何疑？”《世·捷悟》

“公은 사람들이 한 모금씩 마시라고 한 것이니,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5) 滅明曰：“此命也，與螻蟻何親？與魚鱉何讎？”《博·284》

멸명이 말하였다：“이것은 운명인데, 어찌 땅강아지나 개미와는 친하고 물고기
나 자라와는 원수가 되야 하는가?”

예(1)(2)는 주술관계의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사이에 어음상의 휴지 역할과 함께 주어의 의미를 강화하는 提示的 역할을 하고 있다. 예(3)-(5)는 反問文의 앞에 “也”를 수반한 서술문을 두어 어음상의 휴지를 통해 반문문을 형성하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1.1.5 열거

- (1)兒乃答曰：“……我非人也，乃熒惑星也。……”《搜·熒惑星》
아이가 곧 답하여 말하였다：“……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형혹성이다……”
- (2)仲舒曰：“……風其噫也，云其氣也，雷其相擊之聲也，電其相擊之光也。……”《西·118》
동중서가 말하였다：“바람은 그 기가 내뿜는 것이고, 구름은 그 기이고, 천둥은 그 기가 서로 어울려나는 소리이고, 번개는 그 기가 서로 어울려 나는 빛이다.”
- (3)臣蘇賀對曰：“其雨淫淫，言愁且思也；河大水深，不得往來也；日出當心，心有死志也。”《搜·韓憑妻》
신하 蘇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그 비가 끝없이 내린다는 것은 근심하고 그 리위함을 말하는 것이고, 강물이 크고 깊다는 것은 왕래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해가 떠 마음을 비추는 것은 마음에 죽을 뜻이 있다는 것이다.”
- (4)賈應之曰：“……瑞者，寶也，信也。”《西·85》
陸賈는 그에 응하며 말하였다：“……상서롭다는 것은 보물이고 信標이다”

예(1)-(3)이 복문에서 소설의 끝에 쓰인 반면에 예(4)는 단문의 병렬된 서술어 뒤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네 소설에서 단지 한 개의 예문을 볼 수 있다.

1.1.6 상황의 변화

선진 양한 시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진술어기사 중 “也”와 “矣”의 역할은 비교적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也”는 靜態, “矣”는 動態 즉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문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소수이지만 “也”가 변화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예문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1)天戒若曰：“易生專利之謀，將自致傾覆也。”《搜·豕生人兩頭》

하늘이 경고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이익을 독차지할 꾀를 내면, 장차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다”

(2)孔子曰:“天下已有主也。……”《搜·孔子夢》

공자가 말하였다:“천하는 이미 주인이 있다.……”

(3)言曰:“汝著衫汚, 火燒便潔也。”《搜·火浣衫》

일러 말하였다:“네가 적삼을 입되 더러워지면 불로 태우면 곧 깨끗해진다.”

상술한 예문들은 모두 어떤 상황에 대한 시간적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예(1)은 “將然”, 즉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고, 예(2)는 “已然”, 즉 이미 발생한 적이 있는 상황을 서술하며, 예(3)은 “必然”, 즉 반드시 발생할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출현은 위진남북조시기 “矣”의 기능 축소와 함께 “也”의 기능확대로 연결되는 현상이 아닌가 추측된다.

1.2 “矣”를 수반한 진술문

“矣”역시 “也”와 함께 선진 양한 시기 常用되는 진술어기사의 하나이다. 대부분 상황 혹은 시간의 변화와 관련된 진술문에 쓰인다. 변화의 서술형태에 따라 크게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이미 발생한 적이 있는 상황”의 서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문의 분석에 의하면 위진남북조 시기의 네 소설에서도 이러한 기능은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 단지 쓰이는 빈도가 감소된 현상을 살펴 볼 수 있을 뿐이다.

1.2.1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상황”

(1)親授弧矢曰:“我之此行, 若此射矣!”《世·豪爽》

직접 활과 화살을 들며 말하였다:“나의 이번 출병은 이 활쏘기와 같다.”

(2)上謂王曰:“兒堪冠矣。”《西·100》

황상이 효왕에게 말하였다:“아이가 관례를 치를 수 있겠군.”

(3)周乃悟曰:“……財當歸之矣。”《搜·張車子》

주남책이 곧 깨닫고 말하였다:“……재물은 당연히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4)敦謂鯤曰:“余不得復爲盛德之事矣。”《世·規箴》

왕敦이 謝鯤에게 말하였다:“나는 다시는 덕을 흥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상술한 각 예문은 동작행위를 통해 발생 가능한 결과에 대한 추측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기능을 표시하는 조동사 “當·得·堪” 등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추측과 연관되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관계의 복문에 많이 쓰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 宣子曰：“社而爲樹，伐樹則社亡，樹而爲社，伐樹則社移矣。”《世·方正》
阮宣자가 말하였다：“토지신이 나무라면 나무를 베면 곧 나무신이 죽을 것이고, 나무가 토지신이라면 나무를 베면 곧 토지신이 옮겨갈 것이다.”

(6) 乃夢一小兒語母曰：“……不然，不久死矣。”《搜·楚僚》
곧 꿈에 한 아이가 계모에게 말하였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죽을 것입니다.”

(7) 曰：“…夏氣多暖，陰氣自下升，故人得其涼，而上蒸成雨矣。”《西·118》
“여름의 기는 대부분 따뜻하지만 음기가 아래로부터 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시원함을 얻을 수 있고, 증기가 위로 올라가 비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8) 子夏曰：“……雖試語之，而即暇矣。”《博·282》
자하가 말하였다：“비록 행할 수는 없지만, 말은 해볼 여가가 있다”

1.2.2 “이미 발생한 적이 있는 상황”

(1) 公曰：“爲君思之久矣!……”《世·政事》
산공이 말하였다：“그대를 위해 오래 동안 생각하였다……”

(2) 主人謂永曰：“以饒與君矣。”《搜·董永》
주인이 동영에게 말하였다：“돈은 그대에게 그냥 준 것이다.”

(3) 邑人曰：“窮矣。”《西·46》
마을 사람이 말하였다：“이미 궁해졌습니다.”

(4) 子猷問左右：“……此已喪矣!”《世·傷逝》
子猷가 주위사람들에게 물었다：“……이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야!”

(5) 相謂曰：“適見鑿此，已近五百歲矣。”《搜·薊子訓》
서로 대화하며 말하였다：“방금 이것이 주조 된 것을 본 것 같은데, 이미 오백년이 다 되어간다.”

1.3 “耳”을 수반한 진술문

선진 양한 시기 문헌에서 “耳”의 기능은 “也”나 “矣”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게 나타난다. 주로는 “단지 ~할 뿐이다”의 의미로 의미상의 제약 혹은 한정 의 기

능을 수행하지만, 때로 어음상의 휴지나 어기 강화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본문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대부분 그대로 쓰여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지만, 출현빈도에 있어서는 선진 양한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 기능이 확대된 문장이 출현하기도 한다. 문장 속에서의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3.1 의미적 제한

(1) 閔曰：“方問國士，而及諸兄，是以尤之耳。”《世·言語》

袁閔이 말하였다：“방금 국가의 인재를 물었는데 형제들에게만 미치니 이 때문에 책망하는 것뿐이다.”

(2) 帝驚曰：“……朕相試耳。”《搜·壽光侯》

漢章帝가 놀라며 말하였다：“……내가 시험해 본 것뿐이오.”

(3) 朔曰：“帝忍而復，旁人言之，益死之速耳。……”《西·32》

동방삭이 말하였다：“황제는 잔인하고 강박해서 옆에 사람이 도와주라고 얘기하면 죽음의 재촉을 더할 뿐이다.”

(4) 藍田曰：“非無此論，但晚令耳。”《世·簡傲》

왕람전이 말하였다：“그런 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뒤늦게 우수해졌을 뿐이다.”

(5) 答曰：“不知治化何如，唯與張祖希情好日隆耳。”《世·政事》

답하여 말하였다：“교화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오직 張祖希와의 교분은 날로 두터워 질뿐이다.”

(6) 王曰：“非爲簡選，直致言處自寡耳。”《世·賞譽下》

왕몽이 말하였다：“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말을 해야할 곳이 저절로 적어질 뿐이다.”

(7) 王曰：“此正小人有意向耳！……”《世·品藻》

왕우군이 말하였다：“그는 바로 소인이 뜻을 갖고 있을 뿐이다……”

상술한 예문들은 “耳”의 주 기능인 의미적 제한의 기능으로 쓰여진 것으로 현대한어의 “罷了”에 해당한다. 이 중 예(4)-(7)은 의미적 제한을 표현하는 부사 “但·唯·直·正”과 함께 쓰여 그 제한적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1.3.2 어기강화

여기서 “耳”의 어기강화 기능은 선진 양한 시기에도 쓰여지긴 하였지만 출현 빈도가 높은 기능은 아니다.⁷⁾ 그러나 본문의 분석자료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기서 “耳”이 이 시기에 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능도 또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 여긴다.⁸⁾

(1) 欽曰：“本所以疑，正爲此耳。……”《世·德行》

화흠이 말하였다：“본래 내가 의혹을 가졌던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2) 放云：“此易得耳。”《搜·左慈》

원방이 말하였다：“이것은 쉽게 얻을 수 있다.”

(3) 鐘曰：“想足下不愧荀林父耳。”《世·方正》

鐘雅가 말하였다：“당신은荀林父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4) 答曰：“君未見其父耳!”《世·容止》

답하여 말하였다：“당신은 아직 그의 부친을 보지 못한 것이다.”

예(1)(2)는 긍정어기의 강조, 예(3)(4)는 부정어기의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 때론 어기의 강조를 나타내는 “耳”이 조동사 “可·當·須”등과 함께 쓰여 일종의 주관적 의지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5) 謝云：“嵇公勤著脚，裁可得去耳。”《世·品藻》

사안이 말하였다：“嵇공은 발걸음을 부지런히 해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6) 之言曰：“……三年之后，方可照耳。”《搜·漢談生》

그녀가 일러 말하였다：“……삼년 후에는 바로 비취도 됩니다.”

(7) 道戴安道、謝居士云：“恒任之風，當有所弘耳。”《世·排調》

대안도와 사거사를 평하여 말하였다：“항상심을 갖고 책임지는 기풍은 마땅히 넓혀야 한다.”

1.3.3 어음상의 휴지나 제시

7) 문헌상에서 다음과 같은 예가 보인다. 「朱家曰：“……且以季布之賢而漢求之急如此，此不北走胡即南走越耳。……”」《史記·季布欒布列傳》

8) 孫錫信《近代漢語語氣詞》：“有時用‘耳’不帶‘止此而已’的意思，而只表示肯定、強調的語氣，這種用法在后代有繼承并擴大運用範圍的趨勢……”(때로는 ‘耳’가 ‘단지 이러한 뿐이다’의 의미를 갖지 않고 단지 긍정이나 강조의 어기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런 용법은 후대에 운용의 범위를 계승하고 아울러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北京, 語文出版社, 1999), 11쪽.

네 소설에서 많은 예문이 출현하지는 않지만 복문에서 소설간의 휴지나 제 시적 역할을 하는 문장이 보인다. 이러한 용례는 대부분 경시되는 사건이나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1) 鄉人曰：“各自飢困，以君之賢，欲共濟君耳，當有所弘恐不能兼有所存。”
《世·德行》
마을 사람이 말하였다：“각자가 기근으로 곤궁하지만 그대가 어질기 때문에 모두 당신을 구제하려고 합니다만 아마도 두 명의 아이들까지 돌봐줄 수가 없을 것이다.”
- (2) 曰：“頃所見，小鬼耳，必不能辨此源由。”《搜·夏侯弘》
“방금 본 것은 조그마한 귀신일 뿐입니다만 반드시 그 원인을 분별할 수 없을 것입이다.”라고 말하였다.
- (3) 王子敬語王孝伯曰：“羊叔子自復佳耳，然亦何與人事？……”《世·言語》
王子敬이 王孝伯에게 말하였다：“羊叔子は 스스로 훌륭하다고 하지만, 또한 어찌 다른 사람과 무슨 일이 있겠는가?”
- (4) 語諸左右，曰：“夢爲虛耳，亦何足怪？”《搜·文穎》
주위사람들에게 말하자, (그들이)말하였다：“꿈이란 헛된 것일 뿐이니 또 어찌 괴이하게 여길 가치가 있습니까?”

1.3.4 판단

위진남북조 시기 여기서 “耳”의 보편적 운용과 함께 그 기능의 확대로 보이는 현상이 판단적 기능이다. 네 소설에서 “耳”이 판단문의 “也”를 대체하여 쓰여지고 있는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4.1 “……(者) + 부사 + 명사성서술어 + 也” 판단문에 대한 代替

- (1) 傳曰：“……此三賢者，皆敗德之人耳！……”《世·識鑒》
부하가 말하였다：“이 세 현자는 모두 덕을 손상시키는 사람 일 뿐이다.”
- (2) 公曰：“我當年可以爲友者，唯此二生耳！”《世·賢媛》
山公이 말하였다：“내 일생에 있어서 친구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두 학생 뿐이다.”
- (3) 輅曰：“……大蛇銜筆者，直老書佐耳。……”《搜·管輅[-]》
管輅가 말하였다：“……붓을 문 큰 뱀은 다만 늙은 서기일 뿐입니다.……”
- (4) 輅曰：“……烏與燕斗者，直老鈴下耳。”《搜·管輅[-]》

管輅가 말하였다:“……제비와 싸운 까마귀는 단지 수문장일 뿐입니다.”
 (5) 汰法師云:“六通、三明同歸, 正異名耳。”《世·文學》
 汰法師가 말하였다:“六通과 三명은 귀착점이 같다. 단지 이름이 다를 뿐이다.”

1.3.4.2 여기서 “也”를 수반한 “爲”자 판단문에 대한 代替

(1) 乃自申明云:“向問飲爲熱, 爲冷耳。”《世·紕漏》
 곧 스스로 설명하며 말하였다:“나는 방금 차가 뜨거운 것인지 차가운 것인지를 물었을 뿐이다.”
 (2) 濟曰:“夢爲虛耳。……”《搜·蔣濟亡兒》
 蔣濟가 말하였다:“꿈이란 것은 헛된 것일 뿐이다.……”

1.3.4.3 여기서 “也”를 수반한 “是”자 판단문에 대한 代替

(1) 謝太傅云:“……此是屋下架屋耳。”《世·文學》
 謝太傅가 말하였다:“이것은 집 밑에 집을 지은 것일 뿐이다.”
 (2) 劉曰:“若不如方回, 故是常奴耳!”《世·品藻》
 유운이 말하였다:“만약 方回만 못하다면, 진실로 평범한 하인일 뿐이다”
 (3) 郡中典農聞之曰:“此神正當是狸物耳。”《搜·倪彥思》
 郡中の 典農이 이것을 듣고 말하였다:“이 귀신은 바로 살쥬이 일 뿐입니다.”

1.4 “爾”를 수반한 진술문

“爾”은 선진 양한 시기에는 주로 지시대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간혹 어기사로서 쓰이기도 하였다. 어기사로서의 “爾”의 기능은 어기사 “耳”와 유사하게 쓰여 문장 속에서 의미제한의 역할을 하거나 여기 강화의 작용을 한다. 본 문의 분석자료인 네 소설에서는 《세설신어》와 《수신기》에서 만 그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다.

(1) 按行而言曰:“我正爲次道治此爾!”《世·賞譽下》
 순행을 갔다가 말하였다:“나는 바로 차도(왕충)를 위하여 이것을 수리할 뿐이다.”
 (2) 婦曰:“新婦所乏唯容爾。……”《世·賢媛》

부인이 말하였다:“신침이 부족한 것은 오직 용모뿐입니다……”

(3)淳于智卜之, 曰:“君居宅不利, 故令君困爾。……”《搜·淳于智[-]》
순우지가 점을 치고는 말하였다:“그대의 집이 이롭지 못하다, 때문에 그대를 곤란하게 한다……”

(4)處仲曰:“吾乃不覺爾。……”《世·豪爽》
왕돈이 말하였다:“나는 곧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5)先道人寄語云:“……治此計, 權救飢爾, 無爲遂負如來也!”《世·假諷》
이전의 스님이 전한다고 하면서 말하였다:“이 계획을 구상했던 것은 잠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것일 뿐이니, 여래불께 죄를 짓지 말아라!”

(6)龐充相問曰:“姻援始爾, 別甚悵恨, ……”《搜·崔少府墓》
노충에게 주며 위로하며 말하였다:“혼인의 연분이 시작되었을 뿐이니 이별은 슬픔을 더욱 깊어지게 한다……”

1.5 기타 어기사를 수반한 진술문

(1)對曰:“在家思孝, 事君思忠, 朋友思信, 如斯而已。”《世·言語》
대답하여 말하였다:“집에 있을 때는 효를 생각하고, 임금을 섬길 때는 충을 생각하며, 친구를 사귄 때는 믿음을 생각하니, 이와 같을 뿐입니다.”

(2)謝幼輿謂周侯曰:“……就而視之, 其根則群狐所托, 下聚溷而已!”《世·排調》
謝幼輿가 周侯에게 말하였다:“……가까이에서 보면, 그 뿌리는 곧 여우무리가 살고 있어, 아래에는 오물이 쌓여 있을 뿐이다.”

(3)仲舒曰:“……太平之世, 則風不鳴條, 開甲散萌而已; 雨不破塊, 潤葉津莖而已; 雷不驚人, 號令啓發而已; 電不眩目, 宣示光耀而已; 霧不寒望, 浸淫被泊而已; 雪不封條, 凌殄毒害而已。……”《西·118》

동중서가 말하였다:“……태평성대는 곧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소리를 내지 않고 동물들이 허물을 벗고 씨앗을 싹트게 할뿐이다; 빗방울은 흙이 패일 정도로 세차지 않고 나무의 잎과 줄기를 윤택하게 해줄 뿐이다; 천둥은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고 호형으로 만물이 깨어나도록 해 줄 뿐이다; 번개는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하지 않고 눈부심을 보여 줄 뿐이다; 안개는 시야를 가리지 않고 자욱 해지며 대지를 물기 속에 침잠시킬 뿐이다; 눈은 나뭇가지를 봉쇄할 정도는 아니어서 독과 해를 소멸시킬 뿐이다. ……”

(4)曰:“平輿之淵, 有二龍焉。”《世·賞譽上》
“平輿의 연못에 두 마리의 용이 있다.”

(5)式謂元伯曰:“后二年當還, 將過拜尊親, 見孺子焉。”《搜·範巨卿張元伯》
범식이 원백에게 말하였다:“2년이 지난 후 마땅히 돌아와 장차 자네 부모님을 뵈고 아이들을 만나보겠다.”

2. 疑問文에 쓰이는 어기사

의문문은 표현형태에 근거하여 크게 “대답을 원하는 의문문”과 “대답을 원하지 않는 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고, 대답의 형식이나 문장의 형태에 따라 가부 의문문 특정의문문 선택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다. 도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대답을 원하는 의문문(提問)

- 可否疑問文 - 推測疑問文; 可否疑問文
- 特定疑問文
- 選擇疑問文 - 比較選擇疑問文; 反復疑問文; 分節疑問文

대답을 원하지 않는 의문문(反問)

- 可否疑問文 - 推測疑問文; 可否疑問文
- 特定疑問文
- 選擇疑問文 - 比較選擇疑問文; 反復疑問文; 分節疑問文

본 장에서는 문장의 형태에 따라 의문어기를 표현하는 의문어기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려 한다.

2.1 可否疑問文

가부의문문은 특정한 부분을 묻는 것이라,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예” 혹은 “아니오”와 같이 직접적인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원하는 의문문이다. 이 유형의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진술문의 文尾에 의문어기사가 붙는 형태를 갖고 있다.

본문의 분석자료에서 가부의문문에 나타난 의문어기사는 4개로서 “乎·邪(耶)·歟(與)·哉”등이다. 이들은 선진 양한 시기의 상용되던 의문어기사로서 위진남북조 시기 자료인 네 소설에도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다. 다음의 표2처럼 단지 쓰이는 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표2	세설신어		수신기		서경잡기		박물지	
	提問	反問	提問	反問	提問	反問	提問	反問
乎	13	11	13	12	3	1	1	3
邪(耶)	23	19	6	9	2	1		
哉		3		5		4	1	1
歟(與)						1		
계	36	33	19	26	5	7	2	4

2.1.1 대답을 원하는 가부의문문

2.1.1.1 “진술문 + 乎”형식

(1) 支曰：“默而識之乎？”《世·文學》

지도림이 말하였다：“묵묵히 마음 속으로 이해했습니까?”

(2) 帝曰：“水中有魚乎？”《搜·葛玄》

임금이 말하였다：“물 속에 물고기가 있느냐?”

(3) 王曰：“然則射可至於此乎？”《博·283》

왕이 말하였다：“그렇다면 활쏘기의 경지가 이렇게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인가?”

(4) 人間之曰：“卿憑重桓乃爾，哭之狀其可見乎？”《世·言語》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당신이 환온을 그토록 존중하니, 곡하는 형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2.1.1.2 “진술문 + 邪(耶)”형식

(1) 江云：“卿亦復須邪？”《世·方正》

江盧奴가 말하였다：“당신도 마시려 합니까?”

(2) 因問曰：“君女寧卒而却蘇耶？”《搜·賈文合》

이로인해 물어 말하였다：“당신의 따님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3) 飲曰：“災沴之氣，其常存邪？”《西·118》

포창이 말하였다：“재앙의 기운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까?”

(4) 揚子云曰：“長卿賦不似從人間來，其神化所至邪？”《西·81》

양자운이 말하였다：“사마장경의 부는 인세로부터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신령의 변화가 이른 것입니까?”

2.1.2 대답을 원하지 않는 가부의문문

2.1.2.1 “진술문 + 乎”형식

(1) 閻笑曰：“士但可因親舊而已乎？”《世·言語》

원랑이 웃으며 말하였다：“인재가 단지 친척과 친구뿐이오?”

(2) 劉夫人戲謂安曰：“大丈夫不當如此乎？”《世·排調》

유부인이 장난삼아 사안에게 말하였다：“대장부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지 않나요?”

(3) 樊將軍噲問陸賈曰：“自古人君皆云受命于天，云有瑞應，豈有是乎？”《西·85》

번쾌 장군이 육가에게 물었다：“자고이래로 군주는 하늘에서 그 명을 받고 상스러운 응험함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2.1.2.2 “진술문 + 邪(耶)”형식

(1) 王笑曰：“卿輩意，亦復可敗邪？”《世·排調》

왕씨가 말하였다：“당신 같은 무리의 기분도 잡쳐질 수 있소?”

(2) 以足蹙之曰：“汝是畜生，而欲取人爲婦耶？……”《搜·女化蠶》

발로 밟가죽을 차면서 말하였다：“너는 짐승이면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 하나냐?……”

(3) 曰：“義自當有難易，其以一卦爲限邪？”《世·文學》

“뜻에는 저절로 마땅히 어려움과 쉬움이 있을 텐데, 어찌 하나의 괘로 한정하겠소?”라고 말하였다.

2.1.2.3 “진술문 + 與(歟)”형식

“與”와 “歟”는 선진 양한 시기 모두 魚部에 속하는 字로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선진 양한 시기에 이미 의문어기를 표현하는 의문어기사로 쓰였다. 그러나 본문의 분석자료에서는 단지 《서경잡기》의 가부의문문에만 한 예가 나타나고 있다.

(1) 書題遺之曰：“……士有聚歟而不能散者，將有撲滿之敗，而不可誠歟！……”《西·116》

편지를 써보내 말하였다：“선비가 재물을 차취하고 나누어 쓸 수 없다면 박만을 깨뜨릴 수 있으니 어찌 경계로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1.2.4 “豈”와 함께 쓰인 “哉”

- (1) 支從容曰：“……豈是求理中之談哉!”《世·文學38》
 支遁이 조용히 말하였다：“…어찌 이것이 진리의 증정을 구하는 담론이겠는가?”
- (2) 啓王曰：“……此天命使然，豈狗之智力哉?”《搜·盤瓠》
 왕에게 아뢰며 말하였다：“……이것은 하늘이 그렇게 하도록 명 한 것이지, 어찌 개의 지혜와 능력이겠습니까?”……
- (3) 馳象曰：“……豈得以昔之秋胡失禮，而絕婚今之秋胡哉?……”《西·138》
 치상이 말하였다：“어찌 옛날 秋胡가 예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고 해서 현재 秋胡의 혼례를 막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哉”는 선진 양한 시기의 문헌에서 주로 감탄과 의문어기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네 소설에서는 반문문에서만 어기부사 “豈”와 함께 쓰여 의문을 나타낼 뿐 독자적으로 의문어기를 표현하는 용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2.2 特定疑問文

특정의문문은 어떤 한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문장으로 일반적으로 의문대사가 쓰여진다. 네 소설에서 이러한 유형에 쓰여진 의문어기사는 표3과 같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3	세실신어		수신기		서경잡기		박물지	
	提問	反問	提問	反問	提問	反問	提問	反問
乎		1	1	4	1			
邪(耶)	10	12	6	4	2			
哉			1	2		3	1	
歟(與)								
계	10	13	8	10	3	3	1	

2.2.1 대답을 원하는 특정의문문

2.2.1.1 “乎”를 수반한 의문대사 문형

- (1) 后轅鄉里乃太原問轅：“… 此本皆人，何化之微賤乎？……”《搜·管轅〔一〕》
 얼마 후 관로와 동향사람인 乃太原이 관로에게 물었다：“……이들은 본래 사람인데 어떻게 미물로 변했습니까?……”
- (2) 余應之曰：“……此二者亦至誠也，卒有沈溺缺斧之事，何金石之所感偏乎？”
 《西·122》
 내가 그에 응하여 말하였다：“이 두 가지 역시 지성으로 한 것인데, 끝내는 물에 빠져 죽고 도끼날만 빠지는 일이 생기니 어찌 금속의 감응에 편차가 있는 것입니까?”

네 소설에서 이러한 유형은 단지 상술한 2예만이 보이고 있다.

2.2.1.2 “邪(耶)”를 수반한 의문대사 문형

- (1) 乃曰：“此資業之廣，何供饋之褊邪？”《西·89》
 곧 말하였다：“이렇게 물자와 산업이 광대한데, 어찌 차려놓은 음식은 이렇습니까?”
- (2) 意卽召問：“壁有七，何藏一耶？”《搜·鐘離意》
 종리의가 곧 사람을 불러 물었다：“옥벽은 7개가 있었는데, 어찌 1개를 감추었는가?”
- (3) 房曰：“知不忠而任之，何邪？”《世·規箴》
 京房이 말하였다：“불충한 것을 알고도 임용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2.2.1.3 “哉”를 수반한 의문대사 문형

- (1) 問於子夏曰：“彼何人哉？”《博·282》
 자하에게 물었다：“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 (2) 孔子曰：“此物也，何爲來哉？……”《搜·五酉》
 공자가 말하였다：“이 물건이 어찌 왔는가?……”

2.2.2 대답을 원하지 않는 특정의문문

2.2.2.1 “乎”를 수반한 의문대사 문형

- (1) 客曰：“……何有高明之君而刑忠臣孝子者乎？”《世·言語》
 객이 말하였다：“어찌하여 府君이 충신효자에게 벌을 주는가?”
- (2) 孫登見曰：“此病龍雨，安能蘇禾稼乎？……”《搜·病龍雨》

손등이 보고 말하였다:“이것은 병든 용이 내린 비이니, 어찌 농작물이 되살아
날 수 있겠습니까?”

2.2.2.2 “邪(耶)”를 수반한 의문대사 문형

(1)或謂鍾曰:“何不用隨時之宜,而坐待其弊邪?”《世·方正》

어떤 사람이 鍾雅에게 말하였다:“어찌하여 時宜에 따르지 않고,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요?”

(2)母曰:“二年之別,千里結言,爾何相信之審耶?”《搜·範巨卿張元伯》

모친이 말하였다:“헤어진 지 2년이 되었고, 천리 밖에서 구두로 한 약속을 너
는 어찌 진실로 믿느냐?”

(3)丞相云:“逸少何緣復減萬安邪?”《世·品藻》

승상이 말하였다:“王羲之가 어찌 또한 만안에게 떨어지겠는가?(만안만 못하겠
는가)”

(4)王謂何曰:“……那得方低頭看此邪?”《世·政事》

왕몽이 하표기에게 말하였다:“……어찌하여 머리를 숙여 이것을 들여다만 보고
있는가?”

2.2.2.3 “哉”를 수반한 의문대사 문형

(1)曰:“既毀其名,又絕其愿,復何言哉!……”《搜·紫玉》

“(아버님이)그 이름을 훼손시키고 또 그 염원을 끊으셨으니 다시 무엇을 얘기
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2)王頓首曰:“臣聞《禮》三十壯有室,兒年蒙悼,未有人父之端,安可強室
之哉?”《西·100》

효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신이 듣기로는 《禮記》에 서른이 되어 건
장해져야 아내를 맞아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였습시다. 아이가 어리고 무지하
여, 아직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데, 어찌 억지로 가정을 갖
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2.3 선택의문문

선택의문문은 화자가 동시에 두 항목 이상의 의문을 제기하여 청자로 하여
금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의문문이다. 일반적으로 문두에 접속사

“抑·且·將”등으로 연결하거나 부정부사 “不·否·未”등을 문미에 두어 표현하며 의문어기사를 이용하는 문장은 많지 않다. 네 소설에서도 형태에 있어서 유사한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분절의문문에서만 의문어기사를 수반한 1개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雍胸中語曰：“……諸君視有頭佳乎？無頭佳乎？”《搜·賈雍》

가옹의 가슴 속에서 말하였다：“……그대들은 머리가 있는 것이 좋은가 없는 것이 좋은가?”

3. 命令文에 쓰이는 어기사9)

명령문이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요구나 희망을 제기하는 문장이다. 선진양한시기의 명령어기 표현방법을 보면 대다수 명령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사나 어기부사 등의 특정한 표기체계를 갖고 있다. 명령어기를 표현하는 어기사로는 주로 “哉, 也, 矣, 乎”등이 쓰였는데 위진남북조시기의 네 소설에서는 “焉, 也, 矣, 來”의 네 어기사만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博物之士，覽而鑒焉。《博·地理略》

박식한 선비들은 이것을 읽고 살펴보세요!

(2)因曰：“……自可別詔也。”《世·讒險》

그래서 말하였다：“……다른 날에 명령을 내려 부르십시오!”

(3)定伯曰：“新死，不習渡水故耳。勿怪吾也。”《搜·宋定伯》

송정백이 말하였다：“새로 죽어서, 물 건너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를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4)遠曰：“卿可去矣！至洛陽，當相爲美談。”《世·賢媛》

范遠가 말하였다：“그대는 떠나시오! 내가 낙양에 도착하면 당신의 학식을 전하여 미담이 되게 하겠습니다.”

(5)崔謂充曰：“君可歸矣。……”《搜·崔少府墓》

최소부가 노충에게 말하였다：“그대는 돌아가게!……”

9) 본 장과 감탄문에 쓰인 어기사에 대해서는 서술상의 편의와 내용상의 보완을 위해 각각 필자의 기 발표된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하였다. 《魏晉南北朝小說에 나타난 명령어기 표현방법》(《중국문학연구》24집, 2002), 《세월신어 수신기 감탄문 고찰》(《중국언어연구》17집, 2003)

(6) 謂文曰：“授手來。”《搜·高山君》
 高山君이 梁文에게 말하였다：“손을 내밀어라!”

위 예문에서 “焉, 矣”은 네 소설에 나타난 명령문 중 단지 2번씩 각각 사용되었고, 또한 “也”는 12개의 예문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문장 중에 이시기에 많이 이용된 권고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可” 혹은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사 “勿”등과 함께 사용되어 그 명령어기를 나타내는 기능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矣” 또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예문 모두 “可”와 함께 출현하였다. “來”가 출현한 명령문은 네 소설에서 모두 8번 출현하였지만 7개의 예문은 행위동사적인 의미가 문장 속에 남아 있어 여기서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세설신어	수신기	서경잡기	박물지	소계
焉	1			1	2
也	3	8	1		12
矣	1	1			2
來		1			1
합계	5	10	1	1	17

위의 표를 보면 先秦兩漢시기에 보였던 명령어기를 나타냈던 “哉, 乎”등의 어기사는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다. 또한 “也”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고 “焉, 矣, 來”는 매우 적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感歎文에 쓰인 어기사

감탄문은 화자의 어떤 사물 혹은 상황에 대한 기쁨 찬미 애석함 비통함 분노 질책 놀라움과 경이 등의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선진 양한 시기의 문헌에서 감탄문에 많이 쓰이는 어기사로는 “也, 矣, 哉, 夫, 乎, 與” 등이 있고, 현대중국어의 “啊, 呀, 吧, 啦”에 상당한다.¹⁰⁾ 아래와 같은 예

문을 찾아 볼 수 있다.

惡! 是何言也! 《孟子·公孫丑上》

(아이! 이 무슨 말인가!)

劉子曰: 美哉禹功! 明德遠矣. 《左傳·昭公元年》

(유자가 말하였다: "아름답구나, 우의 공적이며! 그 광명의 덕행은 얼마나 깊고 먼 것인가!")

子曰: "甚矣, 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周公!" 《論語·述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심하도다, 나의 노쇠함이여! 오래도다, 내 다시 꿈에 주공을 뵈지 못한지도!")

子曰: "臧文仲其竊位者與! 知柳下惠之賢而不與立也." 《論語·衛靈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문중은 지위를 독차지하려는 자인가! 유하혜의 어짐을 알면서도 관직에 세우지 않다니!")

汲、鄭亦云, 悲夫! 《史記·汲鄭列傳》

(汲黯과 鄭莊도 또한 이러한 불운이 있었으니, 참으로 슬프구나!)

子胥言曰: "王不聽諫, 後三年吳其墟乎!" 《史記·越王句踐世家》

(자서가 말하였다: "군왕께서 저의 간언을 듣지 않으시면 3년 후 오나라는 폐허가 될 것이요!")

위 예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상술한 감탄어를 표현하는 어기사는 선진 양한의 문헌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諸, 焉”등이 감탄문에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사용빈도가 높지는 않다. 위진남북조 시기의 네 소설에 나타난 감탄문을 보면 감탄문에 쓰이는 어기사는 기본적으로 선진 양한 시기에 자주 쓰이던 어기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지만, 또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 이 시기만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也”를 수반한 감탄문

(1) 周侯方慨然愧歎曰: “我常自言勝茂弘, 今始知不如也!” 《世·方正》

周顒가 비로서 개연히 부끄러워하며 말하였다: “나는 항상 스스로 茂弘보다 낫다고 말하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만 못하다는 것을 알겠구나!”

(2) 公拊掌曰: “此子言眞衰也!” 《搜·度朔君》

10) 참고 楊樹達, 《高等國文法》 제9장, 商務印書館, 1984 ; 楊伯峻 何樂土, 《古漢語語法及其發展》 제12장, 語文出版社, 1992

조조가 손책을 치며 말하였다: “이자의 말을 들으니 진짜로 쇠약하구나!”

4.2 “矣”를 수반한 감탄문

- (1) 見王注精奇, 迺神伏曰: “若斯人, 可與論天人之際矣!” 《世·文學》
 왕보사의 주가 정묘한 것을 보고는, 이내 진심으로 탄복하여 말하였다: “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가히 더불어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논할 수 있겠구나!”
- (2) 曲終曰: “袁孝尼嘗請學此散, 吾靳固不與, 廣陵散于今絕矣!” 《世·雅量》
 곡이 끝나자 말하였다: “원효니가 일찍이 이 광릉산을 배우겠다고 청하였지만, 내가 아까워하여 전수해 주지 않았는데, 광릉산이 오늘이후로 끊어지게 되었구나!”

4.3 “耳”를 수반한 감탄문

- (1) 答曰: “此若天之自高耳.” 《世·言語》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것은 하늘이 저절로 높아지는 이치와 같오!”
- (2) 庾曰: “今日之事, 不容復言, 卿當期克復之效耳!” 《世·方正》
 유량이 말하였다: “오늘의 일은 다시는 말하지 마시오, 그대는 마땅히 내가 적을 격파하고 수도를 회복하는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 (3) 郡中典農聞之曰: “此神正當是狸物耳.” 《搜·倪彥思》
 군중의 전농이 이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신은 바로 여우일 거야!”
- (4) 公曰: “今既得鱸, 恨無蜀中生薑耳.” 《搜·左慈》
 조조가 말하였다: “이제 이미 농어를 얻었으나 촉땅의 생강이 없는 게 한이로군!”

선진양한시기의 문헌 속에서 “耳”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은 서술문의 문미에 쓰여 현대중국어의 “而已” 즉 “~일 뿐이다”의 제한적 의미를 표현한다. 그러나 네 소설에서는 이러한 제한적 의미표현 이외에 감탄어기를 표현하는 용례가 “也·矣”보다 그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지해야 할 것은 문맥으로 보아 여기서 “耳”를 동반한 감탄문은 다른 감탄문에 비해 표현되는 감탄어기가 그리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耳”을 동반한 감탄문은 일반적으로 화맥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 감탄어기를 알 수 있을 뿐이며, 單用된 동사 형용사 혹은 명사와 어울려 감탄어기를 나타내는 예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다음에 열거하는 “哉”의 용례(1)은 형용사 “盛”과 어기사 “哉”의 배합 속에 감탄어기를 표현하고 있다. 형용사 하나만으로 감탄어기를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 예문의 감탄어기 표현기능은 문말 감탄어기사 “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들로 보아 우리는 “也·矣·耳” 등이 나타내는 감탄어기가 “哉”만큼 강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張振德·宋子然의 《世說新語語言研究》에서도 다음과 같이 “耳”의 감탄어기 표현기능을 논하고 있다.¹¹⁾

이러한 “耳”은 문말에 쓰여 어떤 상황에 대한 긍정 후에 발하는 경미한 감탄을 표현한다.

4.4 “哉”를 수반한 감탄문

(1) 皓曰：“盛哉！”《世·規箴》

손호가 말하였다: “흥성하구나!”

(2) 引馨而言曰：“快哉，醉我也。”《搜·千日酒》

길게 소리지르면서 말하였다: “유쾌하구나! 나를 취하게 하였구나!”

(3) 友人便怒曰：“非人哉！與人期行，相委而去。”《世·方正》

친구가 곧 화를 내며 말하였다: “사람이 아니로군! 다른 사람과 함께 가기로 약속해놓고, 버려두고 그냥 떠나다니!”

4.5 “乎”를 수반한 감탄문

(1) 卜者曰：“大凶。非一家之禍，天下將有兵起，一郡之內，皆破亡乎！”

《搜·牛能言》

점쟁이가 말하였다: “크게 흉하다. 한 가문의 화가 아니라 천하에 병란이 일어나 온郡이 모두 깨어지겠구나!”

(2) 兒曰：“舍爾去乎！”《搜·熒惑星》

아이가 말하였다: “너희들을 버려두고 가련다!”

(3) 臨刑歎曰：“欲聞華亭鶴唳，可復得乎！”《世·尤梅》

형의 집행이 이르렀을 때 탄식하며 말하였다: “화정의 학 울음 소리를 듣고는 싶지만, 어찌 다시 들을 수 있겠는가!”

11) 張振德、宋子然 主編，《「世說新語」語言研究》：「這類“耳”用在句末表示對某種情況的肯定之後而發出的輕微感嘆。」(巴蜀書社，1995)，343쪽

IV. 結言

고대한어연구에 있어서 현재 당시의 語調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기사는 문장의 어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법적 수단이다. 언어는 고정된 형태의 것이 아니라 역사적 요인이나 문화적 지역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고 발전한다. 어기사의 변화 또한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위진남북조 시기의 네 소설에 나타난 어기사 분석을 통해 선진 양한 시기와는 다른 이 시기만의 어기사 역할과 기능을 고찰해 볼 수 있다. 역할에 따라 어기사의 분포를 표로서 나타내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세설신어				수신기				서경잡기				박물지				소계
	진술	의문	명령	감탄	진술	의문	명령	감탄	진술	의문	명령	감탄	진술	의문	명령	감탄	
也	57		3	10	158		8	11	40		1	1	8				297
矣	17		1	4	19		1	1	8			3	3				57
耳	76			21	38			6	2				1				144
爾	11				2												13
而已	2								1								3
焉	2		1		3				1						1		8
乎		25		1	30			4		3		1		4			68
邪(耶)		64			26					5							95
哉		3		2	8			3		7		1		3			27
與(歟)										1							1
來							1										1
소계	165	92	5	38	220	64	10	25	52	16	1	6	12	7	1		714
합계	300				319				75				20				

위 표를 통해서 위진남북조 시기 어기사의 사용빈도 감소추세와 함께¹²⁾ 본

12) 孫錫信은 그의 저서에서 《논어》·《맹자》·《세설신어》와 몇 종류의 근대한어 문헌에서 어기사 출현빈도에 대한 통계를 통해 近代로 내려올수록 어기사의 출현빈도가 낮아짐을 논하고 있다. (《近代漢語語氣詞》, 北京, 語文出版社, 1999, 45쪽)

문의 분석자료인 네 소설에 나타난 어기사의 역할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은 위진남북조 시기만의 특색을 갖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1. 선진 양한 시기의 靜態적 진술어기사 “也”의 動態적 기능으로의 확대사용. 즉 동태적 진술어기사 “矣”의 기능까지의 확대현상을 말한다.
2. 선진 양한 시기 한정 혹은 제한 기능의 어기사 “耳”의 양적 증가와 기능 확대. 대표적으로는 판단역할의 “也”에 대한 대체사용 용례를 들 수 있다.
3. 어기표현에 있어서 어기사 기능의 집중화 현상. 즉 어기사 “也”의 진술어기 집중화, “乎”와 “邪”의 의문어기 집중화 현상을 들 수 있다.

【參考文獻】

- 程湘清 《魏晉南北朝漢語研究》，山東，山東教育出版社，1992.
柳士鎮 《魏晉南北朝歷史語法》，南京，大學出版社，1992.
邵敬敏 《現代漢語疑問句研究》，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1996.
王 力 《中國現代語法》，北京，商務印書館，1985.
董治國 〈古代漢語祈使句型類析〉，《渤海學刊》第一期，1988.
蔡域弓 〈簡論古文語氣的標點〉，《語言文字學》第十期，1988.
喬惟森 〈古漢語語氣詞數問〉，《語言文字學》第二期，1988.
單殿元 〈用于疑問句句尾的語氣詞“也”〉，《揚州師專學報》第四期，1989.
趙長才 〈先秦漢語語氣詞連用現象的歷史演變〉，《中國語文》第一期，1995.
段德森 〈談古漢語語氣助詞的轉化〉，《雲夢學刊》第三期，1996.
吳欣春 張瑞英 〈語氣詞“邪”與“耶”使用情況調查〉，《古漢語研究》第二期，2003.

【中文提要】

漢語表達語氣的手段是各種各樣的，但最重要的是語調和語氣詞。研究古漢語，由于無法得知古人的語調，語氣詞便成爲重要的切入点。事實上，諸多語法學者，也正是從語氣詞入手探討古漢語句子的語氣。語氣詞(modal particles)，又稱語氣助詞，在句中表傳達某種語氣的作用，一般用于句末。先秦兩漢時期表語氣的語氣詞有不少，常見的有“也、矣、乎、耶、哉”等。魏晉南北朝時期，基本上繼承了先秦兩漢的陳述語氣詞，但在運用方面出現了一些新變化。對此，我們可以參考孫錫信先生(1999)就《世》、《論語》、《孟子》和幾種近代漢語文獻所作統計結果。在《世》、《搜》、《西》、《博》等四種小說的直接引語裏，描述常見語氣詞的使用情況。據分析，魏晉南北朝四種小說中，語氣詞的功能正處于集中化的趨勢。從語氣詞的活用來看，魏晉南北朝四種小說不僅反映出先秦兩漢到魏晉南北朝語氣表達方法的演變情況，而且也反映出中古語言的概貌。可以說，魏晉南北朝小說中所見的語氣詞用法在漢語史上起着上承先秦兩漢，下啓唐宋的橋梁作用。

【主題語】

위진남북조, 어기사, 《세설신어》, 《수신기》, 《서경잡기》, 《박물지》